



Original Article

# Effects of a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 person

Lee, Sung-Hee<sup>1)</sup> · Kim, Hee-Sook<sup>1)</sup>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이 성 희<sup>1)</sup> · 김 희 숙<sup>1)</sup>

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was to test the effects of a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s on their sex role attitude and marriage expectations. **Method:** Forty seven single people were recruited through website advertisements. Volunteers were randomly assigned either to participate in a 4 week premarital education program(2 hours per week)(n=23) or the option to get a hand-out us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a post-test(n=24). An interviewer blinded to the randomization collected questionnaire data from all subjects at pre and post test. The program covered 2 thematic areas: the value of marriage and gender equity-relation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chi^2$ -test, t-test, and ANCOV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riage-expectation score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sex role attitudes score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is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s had positive effects on marriage expectations but not on sex role attitude. Longer follow-up might be needed to evaluate these effects.

**Key words :** Education, Single person, Sex, Role, Marriage

### 서론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세부 전략들이 실행되어 왔으나 2006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2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Kim, 2007).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와 노인요양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당위성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그리고 초혼연령의 상승 등에 있다. 특히, 여성의 가사와 직장일의 병행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결혼기대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여성 취업증가, 성역할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 반면 남녀 양성간의 올바른 이해와 교육의 부재로 상호존중하는 양성평등적 의식은 부족한 결과 때문이다(Cho, 2006).

실제로 Choi(2006)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 분석 연구에서 양

투고일: 2007. 9. 21 1차심사완료일: 2007. 10. 5 최종심사완료일: 2007. 10.2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ung-Hee(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01, Dongin-2ga, Jung-gu, Daegu 702-422, Korea

Tel: 82-53-420-4935 Fax: 82-53-423-5361 C.P.: 82-16-507-0944 E-mail: leesh@knu.ac.kr

성평등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 0.25명의 출산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가 부부의 역할 관계를 평등하게 인식할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Olson & Olson, 2000). 뿐만 아니라 성역할 태도가 미래의 결혼과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보고(Park & Jo, 2002)와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미혼 남녀의 결혼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주어 결혼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보고(Bumpass, 2004)를 종합해 보면 결국 성역할 태도가 최근의 저출산 문제와 연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남녀의 양성평등적 사고 함양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혼남녀로 하여금 결혼 후 육아 및 가사 부담감 감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 결혼생활 유지와 출산을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적 사고 함양 중재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중재로 1980년대 후반부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결혼준비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수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여 왔다(Lee & Chun, 2004). 그리하여 주된 수업 내용이 부부간 의사소통 기술, 위기/갈등 관리, 성생활, 혼수 등 현실적인 결혼준비에 치중되어 있었고(Sohn & Kim, 2005), 양성평등적 사고를 함양할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또한 기존 결혼준비교육의 대상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혼에 대한 기대 자체가 크지 않은 요즈음의 미혼 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안정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내적 성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준비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선행연구에서 결과변수로 주로 결혼 준비도만을 다루고 있었고, 결혼 기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다(Lee & Chun,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적 사고 함양과 결혼 기대 증진을 목표로 한 내용 위주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미혼남녀에게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안정적 결혼생활 유지 및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미혼남녀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미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미혼남녀의 결혼 기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2. 용어의 정의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적 사고 함양과 결혼의 소중함을 주제로 구성된 주 1회, 2시간, 4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미혼 남녀 : D시 N구에 거주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말한다.
- 성역할 태도 :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인의 역할 또는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기대와 규범을 의미한다(Bohannon & Blanton, 1999). 본 연구에서는 Osmond와 Martin(1975)의 성역할태도검사를 Whaung(2002)이 번안 수정한 성역할 태도검사(Sex role attitude scale)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결혼 기대 : 결혼기대는 결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하며(Kim, 1999), 본 연구에서는 Kim(1999)의 결혼기대척도(Marriage-expectation scale)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실험군에게는 4주간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성역할 태도와 결혼기대를 측정하고 대조군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실험군과 같은 시점에 동일 변수를 반복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이었다.

Time	Before	Intervention	After
Group	Intervention	(4 weeks)	Intervention
Experimental	E1	X	E2
Control	C1		C2

X :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E1, E2, C1, C2 : Sex role attitude, Marriage-expectation

<Figure 1> Research design

###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D시 N구로 되어 있는 미혼 남녀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 결혼준비와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자

그리고 연구대상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실험처치에 1회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연구자가 D시 N구 구청장과 보건소장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의 동의를 구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D시 N구 홈페이지와 N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2007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전체 지원자 56명 모두 상기 연구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를 희망한 요일이 짝수일일 경우 실험군에, 홀수일일 경우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표본의 수는 유의수준  $\alpha=.05$ , 집단 수=2( $u=1$ ), 효과 크기를 .40, 검정력을 .80으로 했을 때 Cohen의 표에 의하면 집단별 26명으로 전체 52명이 필요하다. 4주간의 중재기간중 탈락율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 28명씩 배정하였다. 그러나 실험군에서 실험 3주에 2명, 4주에 3명이 실험처치를 받지 않아 실험군에서 제외되었고, 총 23명의 자료가 수집되어졌다. 수집된 23명의 자료 중 분석에 불충분한 자료는 없어 23부 전체가 분석되어졌다. 대조군에서는 실험시작 4주후 사후조사시 4명이 불참하여 전체 24부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되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총 탈락율은 실험군은 18%, 대조군은 14%이었다<Figure 2>.

### 3. 윤리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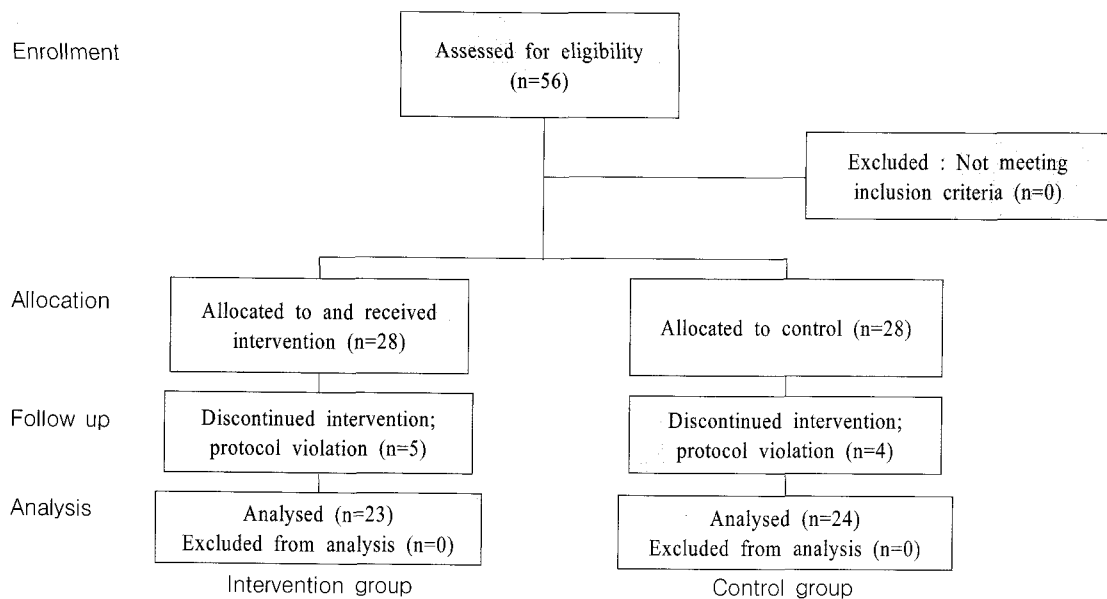
연구 대상자에게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포함한 연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희망할 경우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 4.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평등한 가족>을 지향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결혼의 기대와 의미, 평등한 가족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한 요즈음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기대를 높이는 것에 있으므로 기존의 결혼준비교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을 결혼의 중요성과 양성평등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시기를 전체 4주(1회 120분)로 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Lee와 Chun(200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3주(1회기 100분) 실시한 결혼준비교육에서는 실험 처치 기간이 너무 길어 대상자 탈락율이 높았다. 그러나 Kim(2003)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5회기(1주 1회, 1회 100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 성역할 태도가 변화하였고, Sohn과 Kim(2005)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에서 미혼 개인이 결혼준비교육의 적당한 기간을 4주로 응답한 것을 고려하여 전체 4주간 1주, 1회 120분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결혼의 소중함과 양



<Figure 2> Flow of participants through the trial

<Table 1>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Session	Themes	Contents
1	Goals	To realize the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Warm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test</li> <li>· Introduction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li> <li>· Giving a hand-out and a name card to subjects</li> </ul>
	Lecture	The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sunderstood beliefs about marriage</li> <li>· The advantage of marriage</li> <li>· Six characteristics of happy family</li> </ul>
	Conclusion	· Announcing the themes for the following session
2	Goals	To understand the need for marriage preparation
	Warm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some time to socialize :</li> </ul> The subjects were asked how they were doing since the previous session
	Lecture	The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importance of marriage preparation</li> </ul>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senting &lt;The plan for my wedding&gt; after discussion</li> </ul>
3	Conclusion	· Announcing the themes for the following session
	Goals	To understand gender difference
	Warm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some time to express feeling of being treated unfairly relation to their gender</li> </ul>
	Lecture	The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ological gender characteristics and sex-role identity</li> <li>· The subjects were asked how they feel after pregnancy simulation</li> </ul>
4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subjects were asked how they were doing since the previous session</li> </ul>
	Conclusion	· Announcing the themes for the following session
	Goals	To develop the equalitarian family
	Warming-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subjects were asked how they were doing since the previous session</li> </ul>
4	Lecture	The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nder role attitudes toward the enhancement of couple relationship</li> </ul>
	Group discussion &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subjects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ir thoughts after watching the movie materials &lt;Gender equitable family&gt; developed by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li> </ul>
	Con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ding ceremony</li> <li>· Post-test</li> </ul>

성 평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결혼의 소중함을 주제로 1회기에는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 2회기에는 결혼 준비의 필요성을 교육하였다. 양성 평등을 주제로 3회기에는 생물학적 성차이와 성정체감을, 4회기에는 양성평등가족에 대해 교육하였다. 회기별 구체적인 중재 내용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 5. 측정도구

#### 1)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Osmond와 Martin(1975)의 성역할 태도 검사를 Whaung(2004)이 변안 수정한 성역할 태도검사(Sex role attitude scale)로 측정하였다. Whaung(2004)이 변안 수정한 성역할 태도 검사는 전체 9문항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가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주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당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

임을 의미하였다.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이라 것은 남편과 부인의 역할내용을 성에 의해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에 두어 함께 수용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의 개념으로 역할이 양극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통적 태도라 한다(Osmond & Martin, 1975). 본 도구의 문항중 8번 문항은 역산하였다. 총 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젠 값이 1이상에서 1요인으로 구분되었고 Cronbach's  $\alpha$ 는 .81이었으며 (Whaung, 2004),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 2) 결혼 기대

결혼 기대는 Kim(1999)의 결혼기대척도(Marriage-expectation scale)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기대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Jeon(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6.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7년 5월 4일에서 5월 25일 까지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사전조사

실험의 확산효과를 막기 위해 실험군의 자료수집은 대조군과 달리 5월 4일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D시 N구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시작전 일반적 특성, 성역할 태도 그리고 결혼 기대를 측정하는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같은 날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D시 K 간호대학 세미나실에서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두 집단에 대한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의 소속 집단을 모르는 연구 보조원에 의해 행해졌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인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2)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험군에 대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2007년 5월 4일에서 5월 25일까지 4주간 매주 1회 120분씩 D시 N구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1회기에 교육용 책자를 실험군에게 배부하였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4주 교육은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교수, 양성평등 전문

강사, 해부생리학 전공교수 등 주제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다. 대조군의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실험종료 후 교육용 책자를 제공해 주었다.

#### 3) 사후조사

실험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종료 직후인 5월 25일 오후 8시와 9시 사이에 실험군에게 성역할 태도와 결혼 기대를 묻는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조군에게는 같은 날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질문지를 이용하여 동일 변수에 대해 미리 측정하였다. 사후조사 또한 연구 대상자의 소속 집단을 모르는 연구 보조원에 의해 행해졌다.

### 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집단간의 동질성 분석은  $X^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과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실험군 43.4%, 대조군은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47)

Variables	Categories	Exp. (n=23)	Cont. (n=24)	t / $X^2$	p
		f(%) / M ± SD	f(%) / M ± SD		
Gender	Male	10(43.4)	6(25.0)	1.79	.15
	Female	13(56.5)	18(75.0)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highschool	2( 8.7)	7(29.2)	5.45	.07
	Completed college	3(13.0)	6(25.0)		
	Completed university or more	18(78.3)	11(45.8)		
Job	Yes	21(90.0)	22(95.7)	.00	.68
	No	2(10.0)	2( 4.3)		
Monthly Income (10,000 won)	≤144	2( 8.7)	7(29.2)	5.04	.17
	150 - 199	5(21.7)	4(16.7)		
	200 - 249	7(30.4)	9(37.5)		
	≥250	9(39.1)	4(16.7)		
Satisfaction on current life	Satisfied	13(56.5)	18(75.0)	1.81	.40
	Moderated	8(34.7)	5(20.8)		
	Unsatisfied	2( 8.6)	1( 4.1)		
Age(yrs)		26.6±3.8	24.4±2.7	2.24	.03

Exp.: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25.1%, 여자가 실험군에 56.5%, 대조군에 75.0%로 분포되어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교육정도, 직업유무, 한달 수입, 미혼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분포에 있어서도 두 집단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평균연령에서 실험군은 26.6세였고, 대조군은 24.4세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24, p=.03$ )<Table 2>.

결과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결과 성역할 태도와 결혼기대 점수는 두 집단이 동일하였다<Table 3>.

## 2. 가설 검증

제 1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 후 성역할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처치 후 실험군의 성역할 태도 점수는 일반적 특성 중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이 동일하지 않았던 '연령'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였다. 성역할 태도 점수를 보면 실험군은 35.8점, 대조군은 36.0점으로 두 집단간 차이가 없어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4>.

제 2가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 후 결혼 기대 점수가 높을 것이다.

'연령'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두 집단의 결혼기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31.6점, 대조군은 27.8점으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아( $F=8.27, p=.01$ )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5>.

## 논 의

최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 남녀의 양성 평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미혼 개인의 결혼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비해 성역할적 양성평등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결과 결혼 후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에게 양성평등 의식 함양과 결혼기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연구 대상자의 결혼 기대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준비교육 후 결과 변수로 결혼 기대를 측정할 기존 연구가 없어 이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대학생を対象으로 13주간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여대생의 결혼관이 '선택적'에서 '필수적'으로 변화되었고 결혼 가치관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감소한 것(Lee & Chun, 2004)과 유사한 결과였다.

결혼기대는 결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하며(Kim, 1999), 결혼 기대가 높다는 것은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큼을 의미하므로(Jeon, 2005), 결혼 기대점수의 상승은 향후 결혼을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초혼 연령이 상승한 배경에 미혼 남녀의 결혼과 자녀 출산의 당위성에 대한 낮은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Cho, 2006)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결혼 기대가 증가한 것은 결혼을 상승과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재 후 대상자의 성역할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the outcome variables

(N=47)

Variables	Exp. (n=23)	Cont. (n=24)	t	p
	M ± SD	M ± SD		
Sex role attitude(scores)	35.4 ± 4.36	35.0 ± 6.49	.27	.79
Marriage expectation(scores)	29.1 ± 4.88	27.3 ± 4.21	1.35	.18

Exp.: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4> Comparison of sex role attitude between two groups after intervention

(N=47)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F	p
		M ± SD	M ± SD		
Sex role attitude(scores)	Exp.(n=23)	35.4 ± 4.36	35.8 ± 5.31	.00	1.00
	Cont.(n=24)	35.0 ± 6.49	36.0 ± 6.9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 of marriage expectation between two groups after intervention

(N=47)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F	p
		M ± SD	M ± SD		
Marriage expectation(scores)	Exp.(n=23)	29.1 ± 4.88	31.6 ± 3.79	8.27	.01
	Cont.(n=24)	27.3 ± 4.21	27.8 ± 3.89		

Exp.: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태도의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5회기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 한 후 실험군의 성역할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는 연구결과(Kim, 2003)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에 2시간씩 4주간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 결과(Sohn & Kim, 2005)와 상반된 결과였다. 그러나 평균 연령 28.1세인 예비 부부 13쌍을 대상으로 2시간 8주간의 부부적응 프로그램을 시행 한 결과 관습적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증명하지 못한 연구(Kwon & Chae, 2000)와는 유사한 결과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의미함과 동시에 개인의 역할 또는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 기대와 규범을 의미하기도 한다(Bohannon & Blanton, 1999). 성역할 태도는 성별이 같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 그 행동과 태도를 모방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하다고 익혀 나가는 것이다. 또한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인지적 성숙과 정보 제공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특히 6~8세, 16~18세 시기에 가장 큰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Choi, 1999). 그리고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남녀 평등적(근대적)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Kim, 1996). 그런데 본 연구 대상자의 성역할 태도점수는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점수(Whaung, 2004)보다 낮아서 덜 근대적이었다. 즉, 남녀의 사회적 역할 구분에서 남편과 부인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컸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중재군 26.6세, 대조군 24.4세로 성역할 태도의 급변시기로 밝혀진 16~18세를 훨씬 벗어나 있었다. 그러므로 2주 정도의 성역할 태도 교육으로 성역할 태도의 급변 시기를 벗어나 있고, 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성인기에 있는 대상자의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역할 태도 변화를 위한 중재 방법에 있어 행동적 접근 방법보다 인지적 접근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Lee, 2006). 인지적 접근방법은 학습내용의 핵심적인 문제를 대상자 주변의 생활경험을 토대로 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인상깊게 제시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방식의 교육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인지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지 못하였고 강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교수님의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재 후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남녀별로 측정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표본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남성의 수가 더 적었기 때문이었다. 성역할 태도를 성별로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비해 더 근대적이었고(Hong, 2006; Whaung, 2004; Yoon, 1997), 결혼준비교육 후 성역할

태도의 변화 또한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음(Lee & Jeon, 2004)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나 반복 연구에서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로 측정하는 것이 중재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혼 남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학교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결혼 기대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의식이 낮은 미혼 개인에게 적합하게 개발되었고 기간도 기존의 결혼준비교육에 비해 짧은 4주로 참여자의 탈락율을 낮추고 대상자의 참여 부담감을 줄여 준 것으로, 향후 다른 미혼 남녀에게 확대 적용하였을 때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최근 문제제시되는 만혼 및 초산 연령 상승 해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미혼 남녀에게 적용하여 성역할 태도와 결혼 기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설계는 비동등대조군 전후실험설계였고, 실험군은 D시 N구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로서 실험군 23명, 대조군 24명이었으며, 실험처치는 2007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전체 4주 동안 시행되었다. 시행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과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었다.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WIN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혼 기대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역할 태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예비부부가 아닌 미혼 남녀가 참여할 수 있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향후 미혼 남녀의 결혼 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중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 인지행동적 교육 방법을 적용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본 연구의 중재 효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ohannon, J. R., & Blanton, P. W. (1999). Gender role attitudes of American mothers and daughters over time. *J Soc Psychol*, 139(2), 173-179.
- Bumpass, L. L. (2004). Social change and American family. *Ann N Y Acad Sci*, 1038, 213-219.
- Cho, N. H. (2006, Septembe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Seoul, Korea.
- Choi, J. Y. (1999). *Effects of gender-equity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ar material on student's sex-role attitude*.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S. H. (2006). *Inovative strategies for fertility*. Unpublished manuscript.
- Chung, H. S.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J Korean Home Manage Assoc*, 23(1), 151-159.
- Hong, S. R. (2006).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th. *J Korean Home Manage Assoc*, 24(5), 37-51.
- Jeon, Y. J. (2005). *A study on the family differentiation,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marriage-expecta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Kim, E. M. (2003). *The effect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girl's high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Kim, H. C. (1996). Sex role orientation and amount of time spent in household production by the husband and the wife in the U.S.. *Int J Hum Ecol*, 34(3), 75-87.
- Kim, H. G. (2007). *Unleashing the potential of urban growth*.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in celebration of publishing the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7, Daegu, Korea.
- Kim, J. H. (1999). *A study on the Process of value-search-comparison on the courtship: focused on working women*.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won, J. H., & Chae, K. M. (200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Korean J Clinic Psychol*, 19(2), 207-218.
- Lee, K. E.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pproach and behavioral approach on the changes in the attitude and the continuity in teaching the roles of the sex in a class. *J Element Educ*, 19(1), 171-191.
- Lee, S. H., & Chun, Y. J. (2004). Gender and the impact of premarital education course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Home Manage Assoc*, 22(4), 127-139.
- Olson, D. H., & Olson, A. K. (2000). *Empowering couples*. Minneapolis: Life Inovations Inc.
- Osmond, M. W.,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 *J f Marriage Fam*, 37(4), 744-757.
- Park, E. O. (2006).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outlook on marriage of unmarried women within the church*. Master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Park, S. A., & Jo, E. K. (2002). Male gender role and adjustment of Korean men. *Korean J Psychol Soc Issues*, 8(2), 77-103.
- Sohn, J. Y., & Kim, J. O.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s. *J Fam Relat*, 10(3), 219-236.
- Whaung, E. (2004).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amily-related gender role attitudes: Changes from 1991 to 2002. *J Korean Home Manage Assoc*, 22(1), 2004.
- Yoon, G. J. (1997). The impact of gender role attitud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J Korean Home Manage Assoc*, 15(4), 221-235.